

2019총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 선언문 발표하고 폐막-복음전도, 저출산 극복, 새명존중, 좋은법만들기, 북한성시화 헌신 다짐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당진 시 시곡동 통일교회(담임목사 이수훈)에서 열린 2019총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가 선언문을 발표하고 큰 은혜와 감동 속에 폐막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임대장 조로)가 주최하고 충남성시화운동본부와 당진성시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2019총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미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체코, 스위스, 영국,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북미와 아시아, 유럽 그리고 한국 광역시도와 시군 성시화운동 지도자 330명과 성도 등 1000여명이 참석

했다. 2019총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2019총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교회가 전도시에 전복음을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의 전교회를 연합해 모든 지역, 계층, 직업의 영역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전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우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자살, 도박, 알콜,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동성애 조장 등을 예방하고 치유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존중운동에 앞장서고, 다음 세대 회복과 신앙계승에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또한 "우리는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고 좋은 법을 만들어 지키며, 정책선거문화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 화해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통일 후 북한 성시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는 230개 한국의 시군구와 전세계 172개국 75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과 협력하여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
볼 수 있습니다.



한교연, 제9회 총회 일정 확정, 선관위 구성 타 연합기관 소속 교단의 본회 가입 요건 완화 등 결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제8-6차 임원회가 지난 10월 8일 오전 10시 한교연 회의실에서 열려 제9회 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안을 처리했다.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제9회 총회 날짜를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일(화)로 확정하고, 장소는 서울 종로 5가로 하되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직전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를 위원장으로 7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장 : 이동석 목사(직전 대표회장) 부위원장 : 송태섭 목사(공동회장) 서기 : 김병근 목사(공동회장) 위원 : 박만수 목사(개혁개신 직전총회장) 김동성 목사(대신 증경총회장) 홍정자 목사(진리 총회장) 신광준 목사(공동회장)

이날 임원회는 한장총 한기총



등 타 연합기관에 소속된 교단의로서 이단사이비에 연루되지 않은 건전한 교단이 본 한교연에 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요건을 보다 간소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모 연합기관에 소속돼 활동해 온 교단 중에 9월 총회에서 해당 기관을 탈퇴하고 한교연에 가입하기로 결의하고, 본회에 가입요건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런 경우 통상 가입요건과 다르게 완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했다.

임원회는 이밖에 최근 예정통합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한 것과 관련

해 목회 승계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신학포럼을 개최하는 문제를 대표회장에게 위임했으며, 최근 이웃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아사한 탈북민 모자 사건과 관련해 탈북민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도록 촉구하는데 한교연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10월 3일과 9일에 잇따라 광화문에서 개최된 시국집회와 관련해 한교연은 진영논리가 아닌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의 틀 안에서 사안에 따라 협력하고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 2019 세대공감 나눔릴레이 캠페인 성료 3,000여명의 사랑 나눔 실천으로 5,000여만원 모금



사랑나눔 강원지회, 강원일보, 춘천MBC가 주최하고 춘천북부노인복지관, 춘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위기조손 가정 돕기 '2019 세대공감 나눔릴레이 캠페인'은 8월 26일 신사우동을 시작으로 한 달간 춘천 관내 2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되었으며, 9월 25일 춘천 동면모금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캠페인을 주관한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사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사단법인 사랑나눔 강원지회로 춘천시에서 5년간 운영 위탁을 받아 2017년 11월 27일 개관한 단체이다.

캠페인 폐막식은 춘천시 동면행



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하늘어린이집 원아들의 합창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행사취지 안내 및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행복나눔공모전 시상식,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의 개회사, 김동섭 춘천MBC 대표이사 사장, 이수형 사랑나눔 강원지회 대표의 환영사, 이원규 춘천시시장, 김진태 국회의원의 축사, 동면 주민 모금식 등 순으로 진행되었다.

환영사에서 이수형 목사(사랑나

눔 강원지회 대표)는 "아프리카 코사(Xhosa)어로 우분투(ubuntu)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으로 내가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며, 너와 함께 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우리는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지난 30일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주신 춘천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환영사에서 이수형 목사(사랑나눔 강원지회 대표)는 "아프리카 코사(Xhosa)어로 우분투(ubuntu)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으로 내가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며, 너와 함께 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우리는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지난 30일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주신 춘천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을 전달하였으며, 나눔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살기 좋은 춘천을 만든다는 의미의 '행복이음 완결식'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다.

'행복나눔 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 대상은 춘천 후평동의 이해원씨 가족이 선정되어 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 이외 가족은 나눔릴레이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올 캠페인에는 각급 유관기관과 단체, 주민 등 총 3,000여명이 참가, 5,000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어 나눔의 의미를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모인 성금 전액을 춘천시 위기조손가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행복나눔 사진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은 춘천시,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축산농협, 춘천로타리를 협,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가 후원했다.

추예장합동(보수) 제104회 정기총회 신임원

표어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직무를 다하라 (딤후4:2-5)

총신대 이사장

총신대 학장

목회대학원장

직전 총회장

총회장

부총회장

사 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의부서기

회 계

부회계

총무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희 목사
전북교회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정호석 목사
사랑의교회

김상대 목사
반석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천홍욱 목사
안락교회

강치현 목사
밀알교회

김주현 목사
발라드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경수 장로
전북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교회

본 합동보수 교단은 생명의 말씀을 외치며 영혼구원을 위한 뜻 있는 목회자, 교단, 기관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 : 02)854-1326, Fax 02)496-0181 HP 010-7474-3173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규필 목사

365일 꺼지지 않는 말씀과 기도의 불

소방관도 끄지 못할 불같은 역사, 천안 갯세마네기도원

천안하면 유명한 명물로 생각나는 게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호두과자를 연상한다. 하지만 천안의 명물 명품은 다양하다. 많은 것들로 산재해 있다. 먹거리를 든다면 병천 순대, 성환 0순대, 성환 배가 유명하다. 또한 3.1운동, 아우내장터, 유관순 열사 생가 등 많은 관광지와 천안의 명품 명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기도원을 찾아볼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 천안을 지나면서 우측으로 턴을 하면 논산, 천안고속도로를 접하게 되는데 이때 우측을 바라보면 커다란 십자가 탑이 눈에 띄는데 '갯세마네기도원'이란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원원1길 69-39, 위치에 있다. 갯세마네기도원의 부대시설인 '동산실버타운과 동산요양원, 금강양로원, 동산교회' 등이 자리하고 있다. 기자가 바라본 '갯세마네기도원'은 365일 불이 꺼지지 않으며, 십자가는 365일 불을 밝히고 있고, 성전의 등불도 365일 소등하지 않는다. 이 외에 항상 은혜가 넘치는 기도원으로서 기도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가 365일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갯세마네기도원을 찾아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도 뜨거움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용광로가 따로 없구나 했다. 갯세마네기도원은 원장 김경래 목사, 주강사 천성길 목사, 김환형 목사, 윤혜라 전도사, 심보희 전도사 등이 사역하고 있다. 이곳 기도원을 찾은 다수의 성도들과 함께 추석 연휴 최고의 천국 잔치를 경험했다.

원장 김경래 목사는 중추가절을 맞아 기도원을 찾아온 성도들을 위해서 명절의 대표 음식인 송편을 빚는 등 푸짐한 음식으로 덕담을 주고받는 등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이 흘러갔다. 덕담을 나누는 가운데 원장 김경래 목사는 갯세마네기도원이 이곳에 세워지고 오늘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털어놓는다.

김 원장은 많은 기도원이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면서 기도원마다 어려움이 겹쳐왔고 운영난에 허덕이게 되었다. 급기야 너무 어렵다 보니 기도원의 간판이 하나둘씩 내려지고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때 김 원장은 정신을 가다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리고 깨달은 것

은 사랑을 베풀자,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자며 일어났다. 그래서 김 원장은 기도원을 찾아온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을 베풀면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불같은 말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문제 해결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람의 전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기도원이 회복되었다고 한다.

추석을 이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지만 김경래 원장은 기도원을 찾은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편한 것은 없느냐며 돌아보는 모습에 감동을 입었다고 한다. 어느 성도는 원장님의 힘 있는 활동을 보면서 마치 청년처럼 느껴진다고 하며 이 넘치는 분이라고 말한다.

이곳 천안에 자리한 갯세마네기도원은 각종 수양회나 단체가 기도원 사역 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동물과 새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누구든지 잘 준비된 시설에서 영적 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갯세마네기도원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하는 목소리가 있다. 문의 전화 : 041-558-2267

취재 김영환 기자

한국교회는 홍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중국에 주권이 있는 홍콩, 종교의 자유가 있나?

홍콩의 시위 사태가 격렬해 지고 벌써 4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홍콩의 주권은 22년 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 홍콩인들은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에 주권이 이양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기구'의 형태를 가지고 '1국가 2체제'라는 정치적 형태를 띠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여기에는 '기본법'이 있어서, 종교, 교육, 신앙, 정치적 독립과 재산권 행사 등이 보호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홍콩 문제'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 홍콩 입법회 본 회의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이 심의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법이 통과 되면 홍콩에서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홍콩 시민의 기본권은 크게 침해될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반기를 든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지난 6월 9일에 빅토리아공원에서 약 100만 명이 운집하여 시위를 한 것을 필두로, 6월 16일에는 200만 명, 7월 1일에는 55만 명, 7월 27일에는 29만 명, 그리고 8월 5일에는 공화, 지하철 등 20여개 분야에서 약 50만 명이 총파업을 하기에 이른다는 홍콩인구가 740 여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모든 가구에서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본다.

그 이후 경찰의 강경진압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8월 11일에는 40여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이 실명위기에 처했으며, 25일부터는 물대포, 실탄사격 등으로 유혈사태와 대량 체포가 이어졌다. 10월 달에 들어서서는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대한 하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중국군과 첫 대치도 있었다. 현재 체포자는 2천명을 넘어섰고, 3분의 1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렇듯 홍콩 경찰과 홍콩 정부의 강경진압과 무차별 기소에 따른 부작용은 늘어나고 있다. 결국 홍콩 정부는 지난 9월 4일 송환법을 철회하였지만, 이것은 미봉책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취재중인 여기자가 고무충탄을 맞고, 시위대생이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임신부, 미성년자들과 지 체포되어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의 19주차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위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시안뿐 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다. 홍콩에는 2017년 기준으로 인구가 739만 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40~50만 명이 되며, 기독교 단체로는 1,200여개의 교회와 50여개의 교단과 3개의 대학교와 270여개의 초/중등학교, 10여개의 유치원, 그리고 10여개의 신학교와 수십 개의 병/의원, 60여 개의 사회봉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홍콩의 시위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세계 기독교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한국의 모 언론에서 홍콩 시위에 앞장서고 있는 조슈아 왕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중국 본토에서는 교회 검열과 공산당에 의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송환법 반대에 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미 시진핑 주석의 중국 공산당 당국은 교회의 십자가 철거, 교회 지도자 체포, 지하교회 불허가, 청소년 개종 금지와 주일학교를 불허하는 등, 반기독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행태로 보았을 때에 홍콩 시민들이 각종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우려가 실증(實證)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는 홍콩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위와 함께, 인권과 신앙의 자유 보장 등 홍콩의 각종 자유와 자치권이 지켜지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와 협력이 절실한 때이다.



한국교회연회 대표 유한석 목사

하나님의 뜻 이론 르완다연합대학교 건축

황무지에 장미꽃 피듯이 르완다연합대학교 세워져

르완다는 1994년 투지족에 대한 대학살을 자행한 가슴 아픈 대학살의 역사가 있었다. 인간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그러나 르완다도 한국이 민족적 갈등을 통하여 일본의 식민지와 6.25를 통한 가슴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였듯이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은 아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도서를 포함하여 30.3백만 km2이며 지구 전체의 6%와 대륙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2016년 현재 12억 명이며 이는 세계 인구의 16%이다. 아프리카는 21세기의 문턱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대륙이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시기를 바라라고 계신다.

이중 르완다는 아프리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이곳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 마치 아시아에서 한국을 사용하셨듯이 최근 르완다는 수입재가공 수출산업에 주력을 두고 있으며 이는 동부와 중앙아프리카에 허브인 위치적 장점을 활용하여 콩고, 부룬디, 우간다, 케냐 등 주위 국가들에게 수출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르완다 물류와 분배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르완다연합대학교는 설립되었고 르완다의 기독교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주위국가의 학생들을 훈련하여 아프리카를 위한 전문인 선교사를 배출하려고 한다.

르완다연합대학교 총장 이창기 박사는 이제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다면서 한국 교회들의 후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길 것을 믿고 기다린다고 했다. 이후 세월이 지나 하늘나라에 올라가 이 작은 대학을 통하여 배출된 젊은 군사들이 선교사로 또는 기업가로 아프리카 54개국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적군을 무찌르고 당당히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찬양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은 선교후원으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될 큰 역사를 믿으며 기도드린다는 이창기 총장!

주님의 보혈로 다듬어진 벽돌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르완다연합대학교 총장 이창기 박사 / 지저스타임즈 CJTN TV 제공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암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ltpress@hanmail.net / jltvcpj@naver.com
▶전화 : 전화: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축

예장진리총회 제104회 정기총회 신임원

주제 : 장자의 복을 받는 총회가 되자 (히 12:23)

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전상렬 목사
(새메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김정미 목사
(새메루살렘교회)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정요한 목사
(곡의교회)

말려진 사역에 충심을 다해 뛰겠습니다.

본 총회는 마지막 때 뜻을 같이 할 교회 및 교단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층5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예장(합동보수) 제104회 신임총회장 정호석 목사 선임

부총회장 김상대 목사, 총무 임상국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는 "네 직무를 다하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4일(화) 오전 11시 경남 진주시 모덕로 진주사랑교회(정호석 목사) 본당에서 제10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총회장 정호석 목사를 추대하고 신 임원을 선출하는 등 화가에애한 가운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에 앞서 제1부 개회예배는 총회장 강대일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정호석 목사가 기도, 서기 임상국 목사는 신약성경 딤후 4:2~5절을 봉독, 총회장 강대일 목사는 "네 직무를 다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강 총회장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가 되며 확신에 찬 믿음과 삶을 갖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자'고 했다. 강대일 총회장은 또한 딤후 3:2~3, 5절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입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다. 또한 설교는 지식이나 철학, 학문이나 도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기 임상국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성찬예식에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의 집례로 거행되

어 기도예 조창래 목사(경기노회), 윤석철 목사는 고전 11:23 - 29절을 인용 "성찬의 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분별·분산 위원에 정민석 목사, 김기환 목사가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제3부 회무처리는 의장 강대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서기 임상국 목사가 총대 호명하고 강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절차에 따라 회무가 진행되어 제104회 신임원이 선출되고 신규임원 교체로 신임의장 정호석 목사는 인사말씀을 전한 후 상임부 조직 및 각부보고에 이어 신, 안건 등을 처리했으며 정 의장은 폐회를 공포하고 폐회예배를 드린 후 축도로 마쳤다.

한편 총회신학대학은 이사장 이규필 목사, 총회신학대학 총장 윤석철 박사(24대), 목회대학원장 서동기 목사, 교무과장 정호석 목사 등이 제104회 총회에서 추대되었다.

제104회 합동보수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정호석 목사(경남노회), 부총회장 김상대 목사(대구노회), 서기 서재식 목사(서울노회), 부서기 전종록 목사(경기노회), 회회록서기 김지현 목사(경남노회), 부회록서기 김주현 목사(서경노회), 회계 송인섭 장로(한중노회), 부회계 이점수 장로(대구노회), 총무 임상국 목사(대구노회) 등이다.

예장합동보수(망원) 제104회 총회장에 김철진 목사 선임

모 장로교단과 통합의 건은 (여 목회자) 인정할 수 없어 부결



광 목사 시무)에서 제10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총회장에 김철진 목사를 선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1부 개회예배에 부총회장 김명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어 서기 최병수가 기도를, 부회록서기 최 현목사는 마16:23~25절을 봉독하고, 성락교회 임마누엘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총회장 황덕광 목사는 "자신을 버리는 연습"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황 총회장은 환영의 인사에 이어 지난 한 해 동안 나라와 사회, 교회적으로 요동치는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이념과 사상이 돌로 나누어져 국민이 혼란하고, 조용한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존과 평등에 의해서 이념과 갈등을 넘어서 철저히 지켜왔던 대한민국이었는데, 왜 이렇게 정파의 싸움에 휘말리고 있고, 또한 우리가 왜 이렇게 좌우로 나뉘어서 싸워야 하는가, 자유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요동을 쳐야 하는가를 우리 목회자들은 깊이 반성하자고 했다.

황 총회장은 이날 우리가 104회 총회로 모였으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총회가 있기 전에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잘되어야 총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되어야 교회도 잘 되고, 가정과 교회도 잘 된다고 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한치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혼미한 상태에 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념과 사상에 휩싸여서 표류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끌어내리는 아픈 마음은 지금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실감해야 하고 기도하자며 당부했다.

아울러 황 총회장은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장 안에도 성도들과 생명을, 그들이 국민인데 그들이 정말로 아픈 마음을 끌어내리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달랠 줄 아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그들과 함께 일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교회, 할 말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보충하는 길로 인도할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정의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워가려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자를 찾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대형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대언 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아직까지도 교인과 교세를 세워가는 장난 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형교회의 모습을 본다고 말했다.

또한 중형교회, 또는 소형교회는 어떠한가, 십자가를 뒤로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여 교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잡된 것들과 욕망과 시기과 분투와 질투로 채우려는 모습 속에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고 했다.

이 시대의 대형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 누구도 나와서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보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 합동보수총회는 하나님 앞에 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

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우하시라 만세 민주자유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며 역설했다.

이어 부회계 석종철 목사가 헌금기도를, 총무 이영록 목사의 광고가 있는 후 증경총회장 황덕광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2부 성찬예식은 증경총회장 김수연 목사의 집례, 기도 부서기 김영면 목사, 분별분산위원 홍순현, 이남수, 배기은, 안병균 목사이며 집례자 김수연 목사의 축도로 성찬식을 마쳤다.

이어 오후 2시 3부 총회장 황덕광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기도예 평서노회장 박명길 목사, 서기 최병수 목사의 회원호명 결과 회장 황덕광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순서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모 총회와의 통합은 여성 목회자가 다수 있다는 문제로 가락을 잡지 못하고 고심 끝에 내려진 결과는 좀 더 연구하는데 부결시켰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 신임원이 선출되었다.

제104회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철진 목사(평서노회), 부총회장 최형선 목사(평서노회), 서기 김영면 목사(중앙노회), 부서기 김근주 목사(경기노회), 회회록서기 최 현 목사(서울노회), 부회록서기 이영일 목사(서울교회), 회계 석종철 목사(중앙노회), 부회계 금동진 목사(안주노회), 총무 이영록 목사(서울노회) 등이다.

한편 신임 총회장 김철진 목사는 제104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부족하지만 총회가 허락한 이 일을 위하여 총회 발전에 최선을 다해 함께 나갈 것이라며 인사하고 신임원들과 함께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협력해달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축 국제에녹부흥사회 제4대 총재취임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로 강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총 재										총대표회장									
고 문	고 문	고 문	고 문	고 문	자 문	수석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수석상임회장(임원)	과라과에 대표회장	일본 대표회장							
이환호 목사	정기남 목사	이흥희 목사	임순학 목사	송태평 목사	배정희 목사	김성수 목사	윤동훈 목사	최동준 목사	김해중 목사	이선한 목사	곽성건 선교사	이영자 선교사	곽영민 목사						
곽에스터 목사	파키스탄대표회장	필리핀 대표회장	상임회장	수석실무회장	실무회장	실무회장(사무총장)	실무회장	실무회장	실무회장(회계)	수석공동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공동회장					
마크현비 선교사	김문순 선교사	김선권 목사	김지연 목사	김창숙 목사	정사라 목사	우사랑 목사	유한나 목사	김영애 목사	이현주 목사	김희영 목사	정현영 목사	최건숙 목사	김연희강도사	이영미 목사					
국제에녹부흥사회 회원가입및 집회요청 문의: 010-2631-8013(사무총장정사라목사)										각에스터 목사 제4대 총재 취임식 일시: 2019년 10월 19일(토) 오전 11시 장소: 새소망전원교회예배당 주소: 충남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 2-2									
사무실: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5, (송의동) 등불교회										집회 일정									
										● 매주(목) 저녁 7시 등불교회(곽영민 목사 시무) 목요 신유집회									
										● 9월 15일(주일)-18일(수) 천안교회(김성호 목사)									
										● 10월 20일(주일)-23일(수) 화성예배반석7도원(황금천 목사)									
										● 11월 3일(주일)-6일(수) 믿음교회(배정희 목사)									
										● 11월 7일(주일)-충주 다메섹기도원(이승우 목사)									

■ 靑松 건강칼럼 (712) '통증의 왕' 대상포진

대상포진(帶狀疱疹)

낮과 밤의 기온이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換節期)가 되면 우리 몸은 쉽게 지치고 면역력(免疫力)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된다. 이처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리기 쉬운 질병 중에는 대상포진(帶狀疱疹)이 있다. 대상포진은 몸에 '띠 모양으로 포진(疱疹)'이 생긴다하여 '대상포진'이라고 부른다.

대상포진(herples zoster)이란 우리 몸 피부의 한 곳에 심한 통증(痛症)과 함께 발진과 수포들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상포진은 세계 인구의 약 20%가 일생 중 한 번 이상 감염될 정도로 흔한 질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대상포진 환자가 2014년 약 64만 명에서 2018년에는 약 72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5년 간 1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은 50대 이상의 고령인 발병률 높아 대상포진은 50대 이상의 고령인 사람들이 발병률이 높으며, 대체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30~40대 젊은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추세이다. 대상포진은 면역 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장기이식이나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 많이 발병한다.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는 어릴 때 수두(水痘, chickenpox, varicella)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수두가 치료된 후에도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몸속 신경절(神經節·ganglion, nerve knot)에 잠복해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신경을 타고 피부로 내려와 발생하는 수포성(水疱性) 피부질환이다.

대상포진 병변(病變)은 가슴, 목통, 엉덩이, 얼굴, 팔, 다리의 한쪽으로만 나타난다. 작은 물집이 무리를 지어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증상은 아프거나 따끔거리는 통증이 생기고, 1~3일 지속된 후 붉은 발진이 생기고 몸에 열(熱)이나 두통(頭痛), 전신 권태감(倦怠感) 등 증세가 나타난다. 수포(水疱) 주위는 일반적으로 붉게 되지만 확대·융합하여 넓게 퍼지는 경우도 있다.

물집 내용물은 처음에는 투명하지만 나중에 탁해질 수도 있다. 수포는 고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교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아시아저널協會 The Asian 논설위원
지저스타임즈 논설위원 교문

름이 차면서 탁해지다가 딱지로 변한다. 그러나 수포가 접촉으로 인하여 물집이 터지면 궤양(潰瘍)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포가 생긴 부위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며, 보통 2주일 정도 지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호전된다.

발진 부위에 신경통(神經痛)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과 같은 이상감각(異狀感覺), 지각둔마(知覺遲鈍), 가려움, 운동마비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대상포진이 안면부의 신경절에 침범하면 한쪽 얼굴이 쳐질 수 있고, 방광쪽의 신경절에 침범하면 배뇨(排尿)곤란이 올 수 있다. 신경통은 발진이 나타나기 전부터 생겨서 발진이 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치료 후에도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로 나오기 때문에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남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대상포진을 앓은 환자의 약 10%에서는 피부병변이 완전히 호전된 이후에도 대상포진이 발병했던 피부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이 생긴다. 이들 환자들은 마치 바늘로 콧속 찌르는 듯한 고통을 호소한다. 노인에서 심한 통증이 더 흔히 발생하며, 통증은 온도에 매우 민감해지는 증상과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병적인 증상은 피부

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경우에는 전신에 퍼져서 사망(死亡)에 이를 수도 있다. 대상포진이 눈 주변에 생기는 경우 각막염, 홍채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귀에 발생하면 안면신경이 마비되어 입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온몸에 물집 모양의 발진이 함께 나타날 때 악성 림프종이나 패혈증(敗血症) 등이 병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상포진 진단은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 매우 특징적으로 관찰되므로 임상적으로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즉, 수포가 신경을 따라 무리를 지어 발진·수포·농포·가피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면역억제 환자에서는 피부의 병적인 변화가 특징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정상인에서도 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현미경적 검사, 바이러스 배양, 분자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사는 피부의 수포(水疱)를 면봉으로 긁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된 특징적인 인체세포 모양이 관찰되면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 있고, 수포액(水疱液)을 세포 배양하여 바이러스를 검출하여 확인한다.

치료 중에는 찬바람 쐬지 말고 목욕시에는 물집 주의

치료는 항(抗)바이러스 치료제를 이용하면 신경 손상의 정도를 약하게 하고 치유를 빠르게 한다. 대상포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발진이 나타난 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항바이러스제를 약 1주일 정도 주사 또는 복용하면 환자 대부분에서 치료된다. 통증과 가려움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와 항(抗)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

치료 중에는 되도록 찬바람을 쐬지 말고 목욕 시에는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포 부위에 박테리아 감염이 되는 경우 치료가 지연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육류, 생선, 해물 등을 삼가면 통증과 가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피부 병변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한다. 즉 간염, 폐렴, 운동신경 마비 등이 올 수 있고, 뇌수막염이나 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포진이 눈을 침범하면 각막염, 녹내장 등을 초래하기도 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실명(失明)의 위험도 있다.

특히 면역억제환자는 대상포진이 지각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신의 피부에 나타나기도 하며, 뇌수막염(腦脊膜炎)이나 뇌염(腦炎)으로 진행하거나 간염(肝炎)이나 폐렴(肺炎)을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온몸에 물집 모양의 발진이 함께 생겨 증상을 나타낼 때 악성 림프종이나 패혈증(敗血症) 등이 병발하는 경우도 있다.

대상포진은 피부의 병적인 증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2차 세균감염(細菌感染)이 발생하여 고통을 수 있다. 포진성 통증(痛症)은 피부의 증상이 좋아져도 노인이나 면역억제 환자에게 남는 경우가 흔하다. 면역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경우에도 약 8%에서 포진성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피부로 나오기 때문에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남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대상포진을 앓은 환자의 약 10%에서는 피부병변이 완전히 호전된 이후에도 대상포진이 발병했던 피부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이 생긴다.

이들 환자들은 마치 바늘로 콧속 찌르는 듯한 고통을 호소한다. 노인에서 심한 통증이 더 흔히 발생하며, 통증은 온도에 매우 민감해지는 증상과 동반되기도 한다. 대상포진 초기에 약을 쓰면 포진 후 신경통의 빈도가 낮아진다. 포진 후 신경통이 매우 심하여 진통제로 반응하지 않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50세 이상 예방접종 시행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50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효과는 대상포진 발생은 50%,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발생은 약 60%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예방접종이 세포 면역을 증가시켜주므로 대상포진을 앓더라도 훨씬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70~80대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 효과가 떨어지므로 가성비가 높은 60대에서 예방접종(1회 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가(高價)의 비용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망설였던 저소득층에게 제주시에서는 올해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한다.

파로(過勞)나 스트레스는 면역(免疫) 체계의 약화를 일으켜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므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면역력 강화에 좋은 잡곡밥, 발효식품, 과일, 채소, 버섯, 어패류 등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도록 한다.

박명운 칼럼

세계 文魚의 날

靑松 朴明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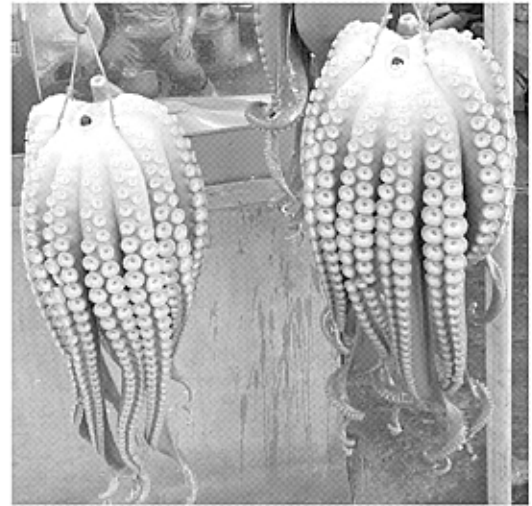
(서울대 保健學博士會 교문), 시사주간·The Jesus Times 논설위원

10월 8일은 세계 문어의 날(World Octopus Day)이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는 지난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원기 회복에 좋은 '문어'와 은빛 옷을 입은 눈부신 '갈치'를 선정하였다. 문어는 4억년 전 공룡(恐龍)과 포유류보다 먼저 지구에 나타나 지금까지 서식하고 있다.

문어(文魚)는 위험한 순간에 붉은 '머물'이 옛 선비를 상징하는 '머물'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머리도 좋아 지능이 높은 것 때문에 '글썽문(文)'자를 써서 이를 붙여졌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문어가 바다 깊은 곳에서 최대한 몸을 낮춰 서식하는 습성을 보고 '양반(兩班) 고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문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알래스카, 북아메리카 등 태평양 북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문어는 종류가 많으며, 즐겨 먹는 나라도 있고 전혀 먹지 않는 나라도 있다. 문어는 주 소비국은 일본이며, 그 다음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다. 통계청 어업생산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문어 생산량은 9,744톤이고, 해외에서 78,873톤을 수입했다.

문어는 바다생물 중에 가장 폭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기르는 개(犬) 수준의 지능을 지니고 있다. 문어는 3만3천개 유전자와 3억개 신경세포를 지닌 섬세한 동물이다. 어느 동물학자는 만약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이 싸움을 한다면 척추 동물의 지휘자는 인간이, 그리고 무척추 동물의 지휘자는 문어가 될 정도로 문어의 지능을 높이 평가한다.



▲ 포항 죽도시장 어시장 문어

우리가 흔히 머리로 생각하는 문어의 등근 부위는 동체(胴體, 몸통)로 내장이 들어 있다. 뇌(腦)가 들어있는 머리는 동체와 다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부위에 있다.

문어는 4쌍 8개 다리를 가지며, 다리에 빨판이 배열돼 있다. 물을 분사하는 제트식 운동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헤엄친다. 이빨은 매우 날카로운 소리같은 단단한 먹이도 깨 먹을 수 있다. 뼈가 없는 연체동물인 문어는 몸의 색은 물론 형태도 자유자재로 바꾸며, 작은 책 크기의 틈만 있으면 바위틈이나 구멍속에 숨을 수 있어 개체 수를 가능하기 어렵다.

문어의 효능으로 피로회복, 다이어트, 눈 건강, 두뇌 건강, 성장발육에

도움이 된다. 문어에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taurine)은 피로회복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문어를 섭취하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며, 망막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기에 눈건강에도 좋다. 문어는 저열량

이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에 안성맞춤인 식품이다. 또한 문어에는 DHA와 EPA가 풍부하여 기억력 향상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필자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초청강연으로 지난 9월 26~27일 포항을 아내와 함께 방문했을 때 죽도시장내 어시장(魚市場)에서 문어 한 마리(6kg)를 21만원에 구입하여 서울에서 가족들과 맛있게 먹었다. 문어를 데칠 때는 팔팔 끓는 물에 무를 얹어 찌어 넣은 후에 문어를 넣으면 색깔이 살아나고 맛도 더 좋아진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 좋은인생 행복만성도 (신 33:29절)



장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서학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목회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췌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이아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마티스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도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정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송 배 시간 안 내 송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리로 16길 11(신선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상가(2층)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영의의 졸업장 수여함.

◆ 과정수료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위임,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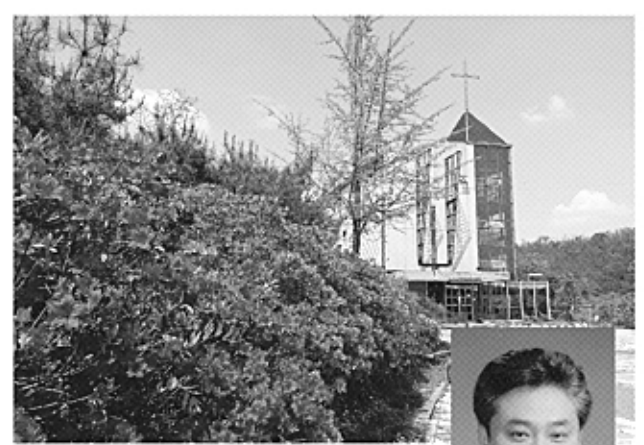
당회장 정대성 목사

2019 동여
성경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침례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담목사 박명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웨신총회 제104회 신임총회장 박정균 목사 선출

부총회장 정순욱 목사 유임, 신임부총회장 김현수, 마순덕, 성용구 목사 선임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지난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소재 일성교회(담임 최정수 목사)에서 웨신총회 제10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를 이끌고갈 신임총회장과 임원들을 선출, 하나님께 기뻐하시라는 총회, 복음전파 사역에 모범적인 총회발전에 새롭게 출발했다.

제1 부총회장 박정균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제2 부총회장 정순욱 목사가 기도를, 서기 성용구 목사가 성경 롬8:28절을 봉독하고, 연합노회 김미라 목사의 은혜로운 찬양을 부른 후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총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허 총회장은 이날 "하나님은 총회와 노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며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총회를 부흥 발전할 것을 믿는다"면서 이러한 은혜가 총대인 여러분이 섬기시는 지교회와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했다.

또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의 경우를 보아 알 듯이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에 팔려갔으며, 또한 애굽에서는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되는가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

고 목살이까지 했지만 후에는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하는 결과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배신당한 상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므로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셔서 급기야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고후 12:7-9절에도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로 안수만 하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스쳐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등 이처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힘들어하고 고통을 해결 못하는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셨다. 네가 약한대서 나의 능력이 강해지리라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다.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중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총회에서나 노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교만을 없애주시고 겸손으로 바꾸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 시키신다고 했다. 이 설교는 CJTN TV에서 은혜롭게 시청할

수 있다. <http://jmtv.kr>를 보세요
이어 특별기도에는 마순덕 목사의 인도로 통성기도를 한 후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2) 총회와 노회, 지교회를 위하여, 3) 신학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으며 증경총회장 이영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또한 특별순서로 부총회장 박정균 목사 외 호남노회에서 총회장 허창범 목사에게 "장한목회자상"을 시상하고, 이어 총회장 허창범 목사 외 호남노회에서 "장한목회자상" 부총회장 박정균 목사에게 시상했다.

이어서 이이중 목사의 집례로 2부 성찬예식이 거행되어 최정수 목사가 기도를, 집례자는 고전 11:23~29절을 봉독하고 "나를 기념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찬식을 진행했다. 이날 분병위원은 이병만, 최이삭 목사, 분찬위원은 최선교, 김복례 목사이며, 집례자의 축도로 성찬식을 마쳤다.

3부 순서로 의장 허창범 목사의 사회로 회무처리에 들어가 중부노회장 황봉기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서기 서용구 목사가 회일호명, 의장 허창범 목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전회의록낭독 등 각부 보고에 이어 임원선거에 들어가 박정균 목사가 웨신총회 제104회 총회장에 만장일



치 선출되어 선거관리위원장 이영종 목사가 당선증을 전달하고, 허창범 직전총회장이 신임총회장에 의사와 총회기를 전달하였으며 꽃다발 증정, 이장해 목사의 축가 순으로 진행되었다.

웨신총회 제104회기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박정균 목사(호남노회/대전성교회), 부총회장 정순욱 목사(연합노회/한국미래선교회), 김현수 목사(수도노회/잠녀머꿈교회), 마순덕 목사(호남노회/사랑하는교회), 성용구 목사(경천노회/수원송석교회), 서기 황봉기 목사(중부노회/사랑제일교회), 부서기 김기출 목사(한서노회/빛가람수양관), 회의록서기 이태균 목사(이스라엘노회/나누리교회), 부회의록서기 최이삭 목사(연합

노회/소망교회), 총무 이준영 목사(경천노회/원로목자교회), 감사 이홍규 목사, 이규 목사, 이이중 목사 등이다.

4부 폐회예배는 총무 이준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기도예 증경회장 이홍규 목사, 신임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사60:1절을 제목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며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 후 폐회를 선언하고 광고에 이어 폐회선언문을 낭독하고 제104회기 성총회를 마쳤다.

웨신총회 제104회 정기총회 열고, 총회장 김춘택 목사 유임

말은 사명 충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칭찬받는 사역자 되자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총회장 김춘택 목사는 전국 각 노회에서 총대들이 참석한 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인천기독교회관 7층 회합홀에서 제104회 정기총회를 개

회하고 현 총회장 김춘택 목사가 유임했다.

회기예배한 가운데 부총회장 정원춘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 예배가 시작되어 부총회장 서기원 목사가 기도하고, 회계 엄희정 목사가 고전 15:9~10절을 봉독, 웨신찬양단의 감동적인 찬양에 이어 총회장 김춘택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봉헌기도에 회의록서기 김영희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총회와 노회, 지교회를 위해, 웨신대와 신학교를 위한 합심 기도를 갖고, 총무 강일만 목사의 광고, 증경 윤덕순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김 총회장은 말씀을 통해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이요 최고의 기적은 구속의 은혜라고 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 땅에 아직 살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자신이 살아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면서 우리들의 생활과 사역, 또는 목회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

셋째로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자고 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것인데 히9: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그날까지 사역자가 되길 기원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한다면 1)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한다. 2)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의 반응이다. 감사하면서 사역에 힘쓰라고 했다. 3)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다. 말은 사명을 충

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칭찬받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했다.

2부 성찬예식은 직전총회장 정일량 목사의 집례로 진행되어 서기 이종규 목사가 기도를, 분병분찬위원에 오 숙, 황미혜, 한수영 목사 등이 맡았으며, 집례자 정일량 목사의 말씀을 선포, 축도 순으로 성찬식을 마쳤다.

3부 회무처리는 종식을 마친 후 오후 2시 30분 의장 김춘택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제104회 정기총회가 순서로 따라 회무가 진행되었다.

제104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김춘택 목사(유임), 부총회장 정원춘 목사(유임), 서기 이종규 목사(유임), 부서기 김영희 목사(신임), 회의록서기 오 숙 목사(신임), 부회의록서기 한수영 목사(유임), 회계 김희정 목사(유임), 부회계 김현중 목사(신임) 등이 선임되었다.

이어 신 안전 등을 처리한 후 내외장소 결정과 회의록 채택, 4부 폐회 예배를 드린 후 김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명운 칼럼 추수감사예배

青松 朴明潤

(서울대 保健學博士 敎員)

추수감사절(秋收感謝節, Thanksgiving Day)은 크리스마스 및 부활절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지켜지고 있는 개신교 최대 명절 중 하나이며 국경일이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 이날 칠면조(turkey) 구이를 먹는 풍습이 있어 '터키 데이'라고도 한다. 추수감사절에는 흠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만찬을 즐기며 재회의 시간을 보낸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종교적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Mayflower) 선박을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淸教徒)들이 이주 첫해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시련을 겪은 후 이듬해인 1621년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 신에게 감사기도를 올리고 잔치를 열어 원주민들도 초대해 옥수수 등 곡식과 야생 칠면조 등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했다고 한다.

연세대학교교회(Yonsei University Church)는 매년 10월 둘째 주일에 추수감사예배(Service for Thanksgiving)를 드린다. 오늘(10월 13일) 오전 11시 예배는 정종훈 담임목사(연세대 교목/교수)가 인도했다. 특히 국악인(國樂人) 6명으로 구성된 전통예술단 '아우름'을 초대하여 우리나라



라 전통악기의 반주로 찬송가를 불렀다. 개회 찬송은 '하늘 나는 새를 보라'를, 성가대 찬양은 '어아디야 감사하세'를, 그리고 폐회 찬송은 '감사하세 찬양하세'를 전 교인이 함께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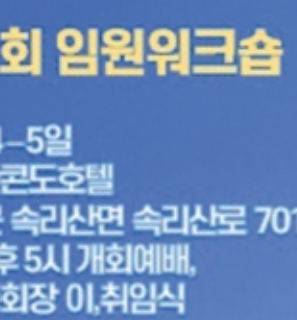
오늘의 찬양 '어아디야 감사하세'는 작곡가 이기영의 곡으로 한국적인 선율과 전통적인 리듬의 사용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곡이다. 찬양 가사의 일부를 소개하면 "어허에 예하야 삼사뒤요 주님 주신 땅 축복의 땅일세 심고 가꾸어 풍년을 누리세 어서 어서 일어나서 지계를 지고서 나아가자 이른 비 밝은 햇빛 씨 뿌리요 가꾸어 보세"

오늘 예배에서 尹鍾圭 교우(KB금융그룹 회장)가 대표 기도를 했으며, 張贊 목사(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現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대표 공동의장)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을 제목으로 말씀증언(sermon)을 했다. 필자는 1985년부터 3년동안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보건영양 과목을 강의하면서 학위논문 지도교수로 활동한 바 있어 장상 총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축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제 104회 정기총회 신임원

충성을 다하여 총회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직전총회장		총 회장		부총회장	부총회장	부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허창범 목사 푸른송교회		박정균 목사 번성교회		정순욱 목사 미래선교회	김현수 목사 꿈너머꿈교회	마순덕 목사 사랑하는교회	성용구 목사 송석교회	이준영 목사 낙타방송	황봉기 목사 사랑제일교회	김기출 목사 빛가람수양관
진리로 생명력 있는 웨신총회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 계	감 사	감 사	지도위원	지도위원(감사)		
										
		이태균 목사 나누리교회	최이삭 목사 소망교회	허은혜 목사 새생명교회	이이중 목사 제일교회	이동근 목사 하은교회	이홍규 목사 지구촌교회	이영종 목사 빛교회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 (302호)

☎ (02)835-2606-7 Fax (02)835-2608 <http://ws21.org>

목사안수및 교단가입문의
010-8476-5282
총회장 박정균 목사

요한계시록 7장 강해(48)

대환란을 왜 7년으로 보는가?

(지나호에 이어서...)

또 다른 잘못된 분류는 계시록을 전부 원어를 인용하여 푸는데 실제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유·상징으로 풀이한 내용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이미 주님이 오셨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요14:16 과 요일2:1에 똑같은 원어 '파라크레토스'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이 재림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재림했다는 것으로 간주해 버렸고, 이미 재림한 예수가 누구누구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요14:16에 "내가 다른 보혜사(파라크레토스)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일2:1에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파라크레토스)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신 '변호인' (파라크레토스)은 하나의 직무를 맡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옹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러한 예수님의 직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파라크레토스'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파라' (~옆에서)와 '크레토스' (변호하고, 보증하고, 위로해 주는 분)가 합쳐진 복합어로서, 요14:16절의 '파라크레토스'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실제의 될 일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비유가 아닙니다.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이 장차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있는 흰 옷 입은 큰 무리'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먼저 흰 옷을 입은 것은 계6:9-11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께 진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또 순교한 자들이 계19:6-9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에 흰 세마포를 입고 어린양의 혼인식에 그의 신부로 청함을 받습니다.

순교한 자들에게 입혀준 흰 옷은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과 일치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13-14절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13-14절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들의 죄를 어린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옷을 어린양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게 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양이 피 흘린 제물 되심과 똑같이 순교 제물로 세워진 것이 곧 흰 옷 입은 것입니다. 순교하는 자들은 많은 세월을 걸쳐 연단을 받고 순교자로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후에 산 제물이 되는 과정을 거쳐 제물 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으로 살게 됐으니 곧 순교자의 신앙까지 물려져 결국 순교할 자의 명부에 녹명된 것입니다. 순교자로 확정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 순교시키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장11절의 순교한 자들과 7장9절의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같은 순교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순교한 후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광경이 계7:9절입니다. 종려나무에 관한 언급은 구약의 여리고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습니다(신34:3). 이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모든 면에서 약체인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시켜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를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날을 종려주일이라 함은 주의 영광과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양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시켜 주신 것과 영광을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10절)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9절에 바로 이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과 어린양 앞에서 큰 소리로 "이 구원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할까요? 이는 흰 옷을 입은 자 즉 순교한 이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양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찬송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구원만도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대환란에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영광이 그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먼저 흰 옷을 입은 무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교한 자신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알고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낳으신 친아버지이시요, 자신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대적 없이 낳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줄 영광, 즉 영원히 아들과 아버지가 기쁘게 살아가게 될 영생의 기업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영광을 생명의 아들들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할 목적을 택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서 오늘날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믿게 하면서 우리 속에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란이 이르러 그의 형상을 만드어 가심을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쁜 신 뜻대로 자신들을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시며 결국 순교 제물까지 바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우리에게 주려고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기업을 고스란히 흰 옷을 입은 우리 즉 순교자들에게 주시니,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순교는 방편이고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셔서 영생복락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이 구원이 어린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어린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본질·본체가 하나님인 한 존재이시며 그분의 사역(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세 인격자로 계십니다. 인격자를 '분'이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한문(漢文)투로 쓰는 말이 '제위'(諸位)라고 하는데 한자 '位'(위)는 '인격', '존재', '분'을 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인격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성령도, 아버지도 모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존재가 하나님이시며 인격이 세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특수한 삼위일체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존재에 한 인격입니다. 어린양은 제물과 관련됩니다. 어린양 예수님이 먼저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흰 옷 입은 그들을 순교의 과정으로 인도해서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은 영이시므로 육체를 입고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말씀이신 영이 육신을 입으시고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 부으시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순교를 통해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이구원·영광을 받게 됐으니

또 예수님은 순교당한 흰 옷 입은 무리에게 성령을 한 번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부어주시며 일곱 영들로 충만케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 일곱 영들로 그들을 순교시켰습니다. 순교는 누가 시키나요? 사도행전 6-7장에서 스테판 집사가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순교했

듯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일곱 영에 의해서 순교가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상에서 순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일곱 영들에 의해서 순교하게 될 것을 계시하는 것이 계3:1, 4:5, 5:6에 일곱 영들이 나옵니다. 결국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일곱 영들에 의해서 순교가 된 것입니다. 순교를 통해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이 구원·영광을 받게 됐으니 어린양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내용을 삶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순교당한 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모두 경험했기에 순교당한 후 그 구원의 내용,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어린양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깨닫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에 포함되어 이 같은 찬송을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드릴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뜻을 정확히 모르면 흰 옷을 입은 큰 무리에 해당될 수도 없을 것이고 순교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다루는 분들이 본문 말씀을 예비해 운운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이 거짓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서 있는 곳이 이 땅의 예비처라고 주장하면 이에 관련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서 있는 곳이 보좌 앞이므로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에 간 상태임을 확증합니다.

11절)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12절)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여기 11-12절의 무리가 앞으로 환란 날에 순교한 후 하늘나라에 가서 흰 옷을 입고 반드시 12절의 말씀과 똑같이 찬송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의 찬송 중에 특징이 무엇인가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아멘'은 계3:14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했고, 동감·동의, 소원, 맹세, 의지 등의 의미가 '아멘'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멘'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지극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신 것 자체가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흰 옷을 입은 무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아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목사코너 -236-

영광받기로 예비 된 자비의 그릇은?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장진리 총회장, CJTN TV 부이사장

(롬9:20-24)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심에 있게 함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덟 명이었지만 오직 약속의 씨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았지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내가 기원이 되면 네게 오리라' 곧 사자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당시 사라는 89세로 경수가 끊어진 아이 낳을 수 없는 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여 마침내 아이 잉태하고 기한 10달이 차에 이삭을 낳으니 이는 곧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요, 약속의 자녀가 이삭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세례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갈3:7), 약속의 말씀 즉 창18:6-8의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녀라(갈3:29).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낳은 두 아들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예수를 미워하였느니라(말2:3)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 선, 악을 행하기도 전에 또 아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따른 목적이 행함 아닌 부르심에 있게 함이나라.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일방적인 사랑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우리가 원함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달음박질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적인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는 그 만든 그릇으로 비유하여 말씀 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것 같이(렐18:6)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귀한 그릇으로 또 천히 쓸 그릇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애초부터 하나님 뜻대로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릇을 만드신 후에 그 그릇을 위해 쓰여 질 말하기로 예비한 진노의 그릇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는 소위 칼빈의 예정론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하나는 택하고 또 다른 하나는 버리는 그런 선택 유익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왕 파라는 말하기를 예비한 진노의 그릇으로(렐9:17). 또 바울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으로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 대적, 거역한 바로 왕이 악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알고 섬기는 바울이 사도되기 전 행한 악행 즉 예수 증거한 스테판 죽이는데 가담, 더욱 믿는 성도들을 일망타진 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바울은 여기까지의 그의 악행은 바로 왕보다 더 악하다고 봐야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회개시키고 사도로 쓰시고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순교케 하여 최고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하시지요(딤후1:13-14) 이것이 곧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비의 그릇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동신대학 이사장)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일아기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전희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 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동신대학 총회장)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북로 62-5(봉곡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정열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진리총회장)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로10, 701호(내송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담임 이정민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여름 타작마당 10 |

잘못된 회개의 결과(1)

영적으로 여름에 목욕을 자주하라! 잘못된 회개 일곱가지?

〈지난호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암시해 주는 말씀이다. 고전 3:13을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 하사 참 신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 했다. 여기서 '그 날'은 마치 막 끝날을 가리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오직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직 시험에 합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때에 시험 들면 끝장이다.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현재 시험에 들어 있다면 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죽을 길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면 결국 자신이 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때 주의 참된 종은 바른 진리와 바른말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 앞에 시험 든다면 그는 끝장이다.

2) 여름에 명심할 것은 목욕을 자주하라.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살결이 끈적거린다. 냄새도 난다. 그래서 샤워를 자주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도 샤워를 해야 한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 가진 자라면 목욕을 자주하는 것이다.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영적으로 목욕한다는 것은 기도과 말씀으로 영을 새롭게 할 것을 가리킨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씻어야 한다. 아침에도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씻어야 한다. 점심때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씻어야 한다. 말씀으로 기도로 씻어야 한다. 할렐루야!

엡 5:26 '이는 그가 교회로 말미암아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케 하사.' 라고 했다. 여러번 회개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여러번 회개 없는 인생은 생명 없는 인생이다. 여러번 회개는 내가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최고의 고리이다.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도 좋은 것이며, 천국과 고리를 연결하는 기회임

을 잊지 말자! 또한 회개는 목욕하는 것으로 비유를 들었다. 그래서 성경에 목욕한다는 말은 다 회개란 말과 연결되고 있다. 목욕하고 나면 온몸이 변화된다. 구역에 목욕하러 가서 모세를 건졌다. 목욕하러 가서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파라오의 딸은 교회의 표상이 되는 데, 이것은 교회가 회개하니, 그렇게 좋은 성도를 보내 주었다는 뜻이다.

또한 예를 들면 밧세바의 아내가 목욕하다가 무엇이 되었는가? 황후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쁜 것으로 보지 말고 오늘 말씀에는 좋은 인격을 끼고 보아야 하고, 들어보자!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 밧세바의 아내를 목욕하러 갔다가 다윗을 만나서 황후가 되었다. 밧세바의 아내가 목욕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눈에 드러나지도 아니했을 뿐 아니라, 황후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목욕을 하게 되니 다윗의 눈에 나타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셨다는 말씀이다. 황후가 되었다는 말은?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성경에 목욕과 관계된 것을 보면 회개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목욕할 때는 일곱 가지의 옷을 벗어야 한다. ① 위선의 옷을 벗어 던지라. ② 시기의 옷을 벗어 던지라. ③ 질투의 옷을 벗어 던지라. ④ 교만의 옷을 벗어 던지라. ⑤ 높은 자리의 옷을 벗어 던지라. ⑥ 명예의 옷을 벗어 던지라. ⑦ 사치의 옷을 벗어 던지라. 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 일곱 가지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한다. 목욕을 하려면 반드시 옷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 깨끗하게 씻게 된다. 위선의 옷, 시기의 옷, 질투의 옷, 교만의 옷, 높은 자리의 옷, 명예의 옷, 사치의 옷, 등 이러한 옷들을 벗어 던져야 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인침 받는 사람들, 성도로서 새롭게 태어난다. 회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회개와 나쁜 회개가 있다.

잘못된 회개란 무엇인가 일곱가지를 들어보자

① 파라오의 회개이다. 파라오란 말은 '큰 집'이란 뜻이다. (출 9:22~25)

여호와께서 천동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이 땅 위로 달리더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라. 고 하셨다. 24절에 보면 매우 심한 불이 우박과 섞여 내리

정기남 목사
편집인



더라. 그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립이나, 집승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들에 있는 모든 채소를 치며,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재앙이 이집트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재앙이 무섭는가? 그때에 파라오가 크게 회개를 했다.

27절=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파라오가 철저히 회개한다. 파라오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33절에서? 여호와께서 손을 활짝 펴니, 천동들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34절을 보면, 파라오가 집심으로 회개한 줄 알았더니, 다시 본색이 들어났다.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어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으니, 그와 그의 신하들이 그러하였더라.' 고 했다.

파라오의 회개는 거짓되고 위선된 회개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당장 무서운 하나님의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수단이었다. 그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파렴치한 회개였다. 이와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며 거짓되고 위선된 회개를 하고 있음을 본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자는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더 꼬이고, 문제가 악화되고, 문제가 극에 달하고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열치 하면 불구하고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머리를 쥐어박아 가면서 통곡하고 갈비뼈가 으드득 소리가 나도록 매어 달리고 주님을 찾기에 애통하는 모습을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숨통이 쏘여 오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 언제 내가 하나님이 필요했는가? 그리고 교회와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등 돌리는 위선자들이 있다. 참으로 못된 자들이 아닐 수 없다. 천동들과 우박과 비가 멈추고 나면 다시 죄를 짓고 돌아선다. 이는 불쌍한 존재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32-

실존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선지자들

〈지난호에 이어서...〉

(1)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정치적인 적수라고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3,000여 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잡으러 다녔다. 하루는 사울과 그 쫓는 자들이 피곤하여 굴 속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이 사실을 안 다윗이 물에 들어가 사울 왕의 겹옷 자락을 베어 가지고 나왔다. 다윗의 부하들이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느냐'고 묻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부하들에게도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삼상 24:1-7).

(2) 모든 세상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100% 믿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 다닐 때였다. 그들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죽은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 왕과 그 심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심복 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분하여 '당장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하자,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0-1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스루아의 아들들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는 것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심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에서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깨달아 선 기했다고 기록해 있는데, 다윗왕은 자신의 심복을 앞에서 하잘것없는 자에게 저주를 받고 목욕을 받으니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시기신 일이라며,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100% 믿었다.

(3) 하나님을 100% 높이고 자기 자신을 0%로 낮추었다.

블레셋에 패하였던 법계를 찾아 다윗 성으로 올라 갈 때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인 미갈이 다윗 왕이 여호와와 제와 사람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겼다(삼하 6:16). 그리고 다윗 왕에게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20절)고 모욕을 주자, 다윗 왕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22절) 괜찮다며,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였으며, 자신은 한없이 낮추었다. 그가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와 직접 대면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대면하신 내용을 살펴보자.

시편 4편 6-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취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였고, 17편 15절에서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쫓겨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 왕은 항상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형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다.

또 25편 3-5절에서도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했다. 그는 한시도 주님의 존재를 잊지 않고, 항상 그분 앞에서 살아감을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7편 14절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3.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1)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성경적 원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히 알고, 그분의 주권과 주관과 공의 앞에 순복하고, 내 것을 버리고 그분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될 수 있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원리

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욥 1:21, 롬 9:20, 삼상 2:6,7). ② 하나님은 주관자로서 모든 행사를 시행하신다(잠 3:6; 16:3, 시 37:4-5). ③ 하나님은 공의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신다(약 4:12, 시 89:14).

(2) 말씀 자체가 순리(順理)라는 원리

한문에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므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잘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망하는 것이 소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 뜻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롬 1:24-27)

◆인터넷에서 위의 강의를 다 보실 수 있음(http://jtntv.kr http://cpj.kr)

◆인터넷에서 위의 강의를 다 보실 수 있음(http://jtntv.kr http://cpj.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목사 서명범, 목사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목사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0-964번지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흥성제일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목사 오종철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목사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목사 박원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베엘중앙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목사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행정 정리 공고

본 노회는 제13회 정기회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 정리하였으며, 이에 해당자는 더 이상 본 노회와 관계가 없기에 공고합니다.

〈다음〉
임직 취소 :
김성호 김인화 노명숙 박성기 이명우
이호성 최정규 최정수 하태수 허승무 (10)
면직 : 이지원 (1) (가나나 순, 총 11명)

주후 2019년 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웨민노회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별장·1급~3급자 환영)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목사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에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목사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목사 홍형표 목사

한경총 사무총장
시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 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촌(직업훈련소)

목사 유순국 목사

경기도 안성시 만안구 능곡로 36(23), 3동 101호(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송택규 목사 초청, 살아 있는 성막 영성 세미나 성료

성막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관계를 확실히 알자

지저스타임즈 CJTN TV 대표이사 정
기남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살아
있는 "성막 영상 세미나"가 지난 20일
(금)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4층 401호 세미나실에서
본지 CJTN TV, CPJ방송 주관, 크리스천
연성, 시너타임즈, BBS, 말씀실천 운동보
부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본사 사무총장 객영민 목사(예장에녹
총회장)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
어원단야한대학 총장 이창기 박사가 대
표기도를, 꾸미오리 위삼찬양단의 위삼
에 이어 한국경목총회 삼임회장 허 식
목사는 마 5:14 - 16절을 중심 "빛으로
살아가자"며 말씀을 선포했다. 특별히
어려운 농촌지 사역자들에게 1부의 신
문을 보내지는데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
선교에 마음을 모아 헌금했다.

이어 본지 논설위원 박명운 박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 고문)는 축사에서 “사회에서 맥락을 잃어 가는 기독교가 공감능력과 맥락을 되찾기 위하여 성직자들과 교인들의 숭순수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세대 교회에서 전 주간 시편 14편 1절을 공부한 내용을 들어서”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디’하는구나.”를 인용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으며 2천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현대 과학자들의 말과 같다는 것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수명을 성경(Bible)적 차원에서 볼 때 구약 창 6장 3절에 “주께서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남은 것은 120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현대 과학자들이 인간의 한계수명을 120세로 산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기록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는 선진국의 평균수명이 70~80세인 것과 동일하다고 했다.

국내 종교계는 공통적으로 교세(敎勢) 감소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2015년 종교별 신자 수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 967만 6천명, 불교 761만 9천명, 천주교 389만명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나라 총 인구의 56.1%(2749만9천명)는 '종교 없음'이라고 응답했다고 했다. 이는 신자와 헌금은 줄고, 성직자는 늘어 삼중무(三重無)에 빠졌다고. 이제 종교는 신자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재정 투명화와 지도자들의 자기회생과 솔선수범이 필수과로 전했다.

아울러 대표자는 정기나눔 목사는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



사를 한 후 강사 송택규 박사(본지 주필)를 소개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을 환영한 후 주필 송택규 목사의 축도로 미쳤다.

종식을 마친 후 2부 강사로 나선 송택구 박사는 “살아 있는 성막 영성 세미나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정말 큰일 났다면서 오늘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잠잠하고 있는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고 역설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며 말들은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이토록 교회가 타락을 했느냐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떠들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 하나님께 계신다고 하면, 교회가 살아 있다고 하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교회도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가 왜 잠잠한가?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의 피가 있는가?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 있는가? 정말 이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사로 나선 송택규 박사는 신학자이며, 강단에서 조용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되는데 학생들에게 조용하게 가르쳐 주지 못한다. 왜 피가 끓어 올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무엇 때문에 세상 눈치를 보는가? 세상이 좋으랴 하나님께서 좋으랴 하면 세상이 좋으랴 할 것인데, 기복 주위를 가르치며 좋으면 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까요? 또한 대형교회는 어떠한가 우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질이 좋고, 그래서 저는 몸은 쇠하고 늙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 국에까지 달려온 것이다.

항상 고민하는 것은 성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공고한가 무엇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가 예수를 믿는데서서 사람들은 불안, 공포, 초조한가 돈 걱정, 살 궁리나 하고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게 무엇인가 어려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농치 못할이 없고 능력이 나간다고 했다.

지금까지 서두로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며, 성막 영성 세미나는 지저스타임즈 CJTN TV, CPJBS에서 동영상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본사 홈페이지는 <http://jmtv.tv> 또는 <http://cpjkr.com>에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방송하게 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보시면 영적
인 신앙회복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웃이 함께하는 자리로 은혜
를 나누는 시간이 되자!

지저스타임즈 구독과 CJTN TV, CPJBS를 시청 구독해 주시고 문서선교에 5,000원부터 시작하여 선교헌금을 작성하시는 분은 본사 이사로 등록이 된다. 문서선교에 많은 후원을 기대합니다. 삼률

예장 진리총회 제104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선임)

대한예수교장로회 진리총회가 지난 9월 20일(금)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소재 주사당교회 본당에서 개최되어 서기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회계 감검미 목사가 기도, 인도자가 성경봉독(히11:22-24)을,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참 장자총회의 복을 받는 총회”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마쳤다.

2부 성찬예식 집례에서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새언약의 피"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찬예식을 마쳤다.

3부 회부처리에 들어가 의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김은임 목사가 기도를, 서기가 총대 호명한 결과 정족수 과반 수 이상 되어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회소절차에 따라 회부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원선서는 선거위원 4명 선정(최순란, 정상렬, 박근규, 김은임)하고 별실에서 결정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 제104회기 총회장에 장한국 목사를 추대하고 총대들의 박



수로 만장일치 연임되었다.

안건토의에서 1. 경기도 의회"나쁜 성령 등 조례" 재개정 및"차별금지법"제정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본 총회의 입장을 분명히 선언, 첫 번째로 기도회 진행 하며, 또 비대위(위원장 박만규 목사)를 교보수TV 개국, 한기보 사이버신학, 신학 대학원 개원예배(9월 24일)에 참여한다는 결의와 특히 신대원에 대해 총회적 관심을 갖고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설치 계속 대처해 나간다고 했다. 2. 기독교보수TV 개국, 한기보 사이버신학, 신학대학원 개원예배(9월 24일)에 참여한다는 결의와 특히 신대원에 대해 총회적 관심을 갖고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예장(정통)총회 제55차 정기총회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는 지난 9월 16일(월) 오전 11시, 구로동 평안교회(양정섭 목사사무)에서 제 5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장 양정섭 목사를 비롯해 현 임원진 그대로 유임되었다.

총회에 앞서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가 기도를,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는 "성경 사 40:27 - 31절을 봉독했다.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양 총회장은 '힘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이자 귀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가? 첫째 하나

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여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앙망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소원을 만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둘째 예수님의 권세로 새 힘을 부여받는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합입고 담대히 외칠 때 그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게 되었듯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합입고 역사하는 곳에 새 힘을 부여 받는다.

셋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



의 사자를 보내어 하늘의 힘을 얻게 하시며 하늘의 권능으로 도와주신다.”면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덧입고 힘차게 소망가운데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임제준 목사(부총무)의 기도로 2부 정기총회에 들어가 서기 전대식 목사의 총대 호명에 이어 양 총회장은 총대 과반의 징족수를 확인 개회를 선포했다.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는 이날 임시 서기로 임명되어 회의내용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 회의록 보고에 이어 모든 삼비부 등이 유원물대로 받자는데 결의하고, 임원선거에 들어갔다.

임원선거는 총회장 양정섭 목사, 부총

회장 김홍룡 목사, 이영춘 목사, 양상은 목사, 한세전 목사, 삼일총무 임정태 목사, 부총무 임세준 목사, 협동총무 김두경 목사, 강대하 목사, 서기 전대식 목사, 부서기 민경구 목사, 회의록서기 최은희 목사, 부회의록서기 이영숙 목사, 회계 김영욱 목사, 부회계 김병선 목사, 감사 한성옥 목사, 이순례 목사들이 전원 유임되었다.

신 안전토의에 사업안과 예산안은 처리하고, 회의록 채택은 차후 56차 정기총회에서 보고할 것과 기타 안건은 접수되는 대로 임원회에 위임하고,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고전 4:1-2절을 낭독하고 제55차 정기총회가 폐회되었음을 선포한 후 축도로 마쳤다.

함께한 분을 위한 마지막 약속 그것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한국 의전 협동조합 전국 8개 본부 운영 출동 2시간 이내

한국의전협동조합에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상품검색 : NAVER 한국의전협동조합 확인

상품검색 : NAVER 밴드 한국의전협동조합 가입

**장례서비스카드
무료 발급**



바른 장례 우수기업 선정

한국의전협동조합

Korea Culture Ceremony Cooperatives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이웃

VIP Premium CARD SN: KCS-838373378

회원용 장례서비스 카드

본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 복리후생시스템 10~50%까지 할인서비스



바른 장례 우수기업 선정

출원 **한국의전협동조합**

Korea Funeral Ceremony Cooperatives

www.koreasj.com



VIP 선택형 장례서비스 상품

단순장례: 1,200,000 / 기본장례: 2,100,000 / 고급장례: 2,900,000

필요시 선택항목			60만원의 혜택	
1. 수의준비	30만원	6. 용품미사용	30만원	전문장례지도사
2. 세단차량	20만원	7. 도우미 4명	40만원	민속용품
3. 남자상복 4벌	20만원	8. 리무진 미사용	30만원	한화 30송이 채근
4. 여자상복 5벌	10만원	9. 장의버스 미사용	30만원	화장식 분장형 채근
5. 관 미사용	20만원			매장시 횡대 채근
				관내 이송
				습관 습관 보조인력

무료상담 전국 **1644-2542** *상품확인용 "홈페이지 클릭"

함께한 분을 위한 마지막 약속, 그것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1장 강해 (4) A Study on the Book of Isaiah

(지난호에 이어서)

8. 종의 노래

이사야서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는 전 4편의 '여호와와 종의 노래' (42:1-9; 49:1-6; 50:4-9; 52:13-53:12)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종으로서 택한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소개한다. 곧 이사야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여호와와 영광을 나탄벨 종(49:3)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고(50:4), 백성들의 대속(代贖)을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수난도 기꺼이 받으시는 분(53:4-9)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이 수난을 통해 구속 사역을 마쳐셨을 때 그를 크게 존귀케 하실 것이라고(52:13; 53:12)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는 신약 성경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무릇 각 칭호는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의 어느 한 면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그 한 면을 보다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고에 활짝인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한 특별한 종(Servant)으로 노래한 이 '여호와와 종의 노래들' 앞에서 참으로 선하고 위대한 종으로서의 주님의 면모를 새삼 발견하면서 다음 두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된다.

첫째는 그토록 위대한 종을 보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종의 지위와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다. 실로 세상은 이미 아담의 때부터 이 여호와와 종의 노래들이 선포된 구약 이스라엘의 때 그리고 바로 지금 신약 시대의 우리들의 때에 이르기까지 거듭하여 하나님께 패역하고 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를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고 계셨으며 더욱이 앞으로도 경험하실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상의 종말론적 구원을 위하여 한 특별한 종을 그토록 바로 당신 자신의 아들을 종으로 택하시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묵묵히 취하시고 또 수행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참으로 무한한 그리고 순순한 사랑 앞에서 그것도 내가 그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이미 나에게 무조건적 은혜로 쏟아 부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참으로 무한한 구속사적 감사와 감격에 젖게 된다.

둘째는 죄와 절교에 휩싸인 우리의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을 위한 사역을

절대 초월자요 창조자로서 전 우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한 특별한 종이었으며 그 자신도 제 2위 성자로서 절대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수행하셨다는 사실이 주는 구속사적 확신과 소망이다. 이런 종의 사역은 그 종이 일단 성육신 감림과 십자가 대속 수난을 중심으로 하는 초림으로 일단 성취하고 그리고 이제 초림 이후의 신약 세대들이 믿고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신 후 마침내 재림하사 최종 실현시키시는 양식으로 수행될 것이었다.

따라서 더욱이 이제 이미 종의 초림 사역이 종결된 시대인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종이 행한 구원 사역은 절대 완전하며 절대 확실한 것임을 절대 확신하며 실로 약동하는 환희와 소망에 젖을 수 있는 것이다.

실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와 종의 노래는 공회하고 환광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구속사적 은혜와 소망을 각성시키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와 종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 영혼이여! 들리는가, 저 여호와와 종의 노래가!

9. 고난신학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신명기와 지혜서에서 고난을 죄의 대가로 생각한다면 이사야에서는 고난을 단순한 대가가 아닌 구속적 행위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고난이 자신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사상을 시편의 탄식을 넘어서는 입장이다. 구약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한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스룹바벨 등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신약에서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그러한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고난이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가 가장 확실하게 부합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사 52:13-53:12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속량하기 위한 종의 고난에는 고난뿐 아니라 죽고 다시 부활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고난의 종 자신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함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난을 당하며, 그 종의 수난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든다. 분명히 여기에 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구체적인 방편이며,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언함이다.

10. 이사야서와 현대성도

본 이사야서는 일차적으로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앗수르 제국의 침공, 나아가 바벨론 포로 사건 등과 같은 환난이 임하게 된 것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결과임을 밝히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개함으로 새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헬륨이나 신본에 관계없이 세계 만민은 인간의 힘이나 그들이 믿는 우상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구원의 핵심 진리와 직접 관련하여 본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 당시의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실로 풍성한 교훈들을 전해 주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할 것이다 (6:13; 48:1,2; 롬 12:1,2).

②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굴복하거나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각종 우상에 현혹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③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이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④ 우리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자들이 만큼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⑤ 여호와와 구속복음(救贖福音)이 세계만방에 전파되고 세계 만민을 구원원으로 하는 메시아 왕국(The Kingdom of Messiah)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 처소에서 충실한 여호와와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⑥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선행을 힘써야 한다.

⑦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서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방하는 모든 죄악 된 행위와 생각들을 근절함으로써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II. 내용 연구

[제 1장] 유다의 광범한 죄악

히스기야의 통치 중기 시대에 만연한 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으로서 본장이 시작되고 있다. 즉 하나님

의 뜻을 거역하는 유다가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앗수르에 의하여 멸망된 상태였으며 유다도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 갔으며 예루살렘만이 남아 있는 비참한 지경이었다. 이사야는 먼저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애도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패역함에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기도 하다.

[내용 분해]

1. 시기, 저자, 내용을 밝히는 포제(1) 1장 1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기록의 목적은 계시(Revelation)를 보이기 때문이다. 사 1:1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2. 여호와를 거역한 이스라엘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대한 비가(2-9)

사 1: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 1:4 슬프다(히 - 호이)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려갔도다.

3. 이스라엘의 형식적 제사에 대한 지탄과 변론과 회복의 장으로의 초창(10-20) 사 1: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4.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비판과 심판을 경유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21-31)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사 1:2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צדקה - 미쉬파트)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צדק - 체데크)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다.



김성립 목사
강의 제자신학원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도영성 신학(4)

하나님의 생명력을 깨닫은 사도들 순교를 각오한 사역

(지난호에 이어서)

완벽으로 나가려는 소원을 가지면 사도 역시 많은 결점과 부족함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진 자요, 기도의 정신을 가지면서도 견인(堅忍)의 덕이 부족한 자이다. 완덕의 목적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에 있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집착을 끊고 마음을 죄에서 멀리 정화해야 된다. 이 정화의 과정은 우리의 영혼을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닦는 일이며, 우리의 자아가 세상적·인간적·감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초탈'의 훈련과 실행을 말한다. 이러한 영적 성장을 위한 정화의 과정은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정화의 방법

거룩한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영혼은 이미 성화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시작조차 할 수 없다. 그 영혼은 은혜와 주입 덕행 및 성령의 선물들을 함께 받고 있다. 살아 있는 성

홍향표(요한) 목사
사도영성 아카데미 원장



전인 그 영혼 안에 성상위에서 내주(內住)하신다. 그리고 양자 관계를 맺어 주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영원히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은총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불완전성과 결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온갖 유혹과 악한 경향과 실행을 말한다. 이러한 영적 성장을 위한 정화의 과정은 '성화'(sanctification)의 과정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 마약 범죄와의 전쟁(8) |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지난호에 이어서)

최근의 동향과 실태

마약류 사범의 우리나라 추세는 80년대 이후(以後) 계속 증가해 오다가 89년에 약간 주춤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일시 잠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사범 또는 대형화된 기업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느낌이다. 89년 단속자 중 함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자가 80%이며, 사범별로는 투약자(投藥者)가 가장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이 31% 정도 가장 높고, 경기 16.3% 등 제주에까지 전국적으로 골고루 확산되어 있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34%, 농업이 13.5%, 학생, 주부, 의료인, 연예인 등 사용계층이 다양화되어 있다. 연령층은 20~30대가 58.8%로 연소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 76.8%, 여자 23.2%로 여자사범은 액속이나 대마배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건을 4시간마다 투약하면 24시간 이내에 신체적 의존이 생기고, 의존이 생긴 후 약물을 중단하면 금단증상이 일어난다.

홍성선 목사
마약정보학박사
NGO세계기독교청년회 이사장



아편

아편은 터키, 멕시코,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중국, 태일란드, 레바논에서 재배하는 Papaver Somniferum이라 불리는 양귀비에서 나오는 강력한 약물이다. 설익은 양귀비의 열매 곁뚜리에 흠집을 내면 우유 같은 수액이 흘러나온다. 흠집을 낸 채로 놓아 갈색의 고무질 물질이 될 때까지 건조시키면 이것이 아편이다. 이러한 아편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를 추출하여 톨핀, 헤로인, 코데인, 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등 아편 제제의 약품을 만든다. 위의 약품을 이용해서 만든 주요 마약에 대한 약물의 개념과 약리적 작용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Since 1989~ 30년을 한결같이~

-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2019년 기록과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270만원 → 170만원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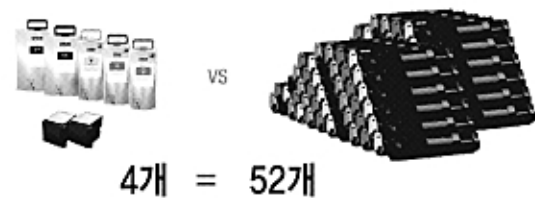
-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카세트에서 주보가능]
-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 현금봉투, 소모품, 대봉투 출력가능
-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대용량 용지 급지함 지원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로 유지비용 절감
- 등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4개 = 52개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교회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 C, M, Y 4개)를 더 드립니다.



특별
할인

소모품비용
90%
절감!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TEL. 1588-0691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010-3651-8572, 010-5779-0691 인선공장: (계양구청 앞) 032-551-4114

서사라 목사의 천년왕국설에 대한 비판적 평가

천년왕국 이해에 대한 비판적 평가



권호덕 교수
(현재 콜루루게학파 연구소 소장)



서사라 목사

은 대학교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은 유명한 잡지에 실렸고 UCLA에서 쓴 박사 후 과정에서 쓴 논문은 30년 내려오던 이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론을 주창했다.

이런 점에서 뉴턴 시대의 뉴턴에 방불한 과학자로서 천국과 지옥을 다뤄와 '천국과 지옥'이라는 저서를 남긴 이마누엘 스웨덴보리나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뇌사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체험기(나는 천국을 보았다)를 쓴 이븐 알렉산더 교수를 생각나게 한다. 서 목사는 성경을 매우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의사와 과학자의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서 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거기서 스스로 본 내용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또 거기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과 나눈 대화를 크게 참조함을 보여준다. 일곱 권에 이르는 서 목사의 저서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많은 질문을 던짐을 쉽게 볼 수 있다. 다른 대부분의 경험자들은 자기들이 천국과 지옥에서 본 것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으로 그친다.

현재 하늘 낙원의 구조와 천년왕국의 구조

3. 서사라 목사는 '현재 하늘 낙원'의 구조와 '천년왕국'의 구조 그리고 '영원천국'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고 증거한다. 1) 성(城)안, 2) 성(城)밖, 3) 지옥. 즉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인 성(城)안과 어둡고 고통의 장소인 성(城)밖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한 부분이다. 서 목사는 특별한 체험으로 천국과 지옥을 둘러보고 증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말하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를 여러곳에서 다뤘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 같은 구절에서 암시되고 있다고 보고 천국의 성 밖 정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말한다.

4. 서사라 목사는 천국을 두 단계 곧 성(城)안과 성(城)밖으로 나누기 때문에 기존 세대주의자들이 성안에 영화로운 몸을 가진 자들과 죽을 수 있는 몸을 지닌 자들이 함께 거한다는 모순을 극복하게 한다. 즉 서 목사는 천년왕국 성(城) 바깥에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천년왕국 바깥에서도 천년동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한다. 나아가 서 목사는 천년왕국 바깥에서 아이를 낳고 죽고 하면서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일부는 낙원으로, 다른 부분은 음부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이 부분 역시 기존 신학에서는 매우 낯설어 하기 때문에 정밀한 성경 해석적인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5. 서 목사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을 치러온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인데 천년왕국 성(城)밖에서 100년 정도 살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살아 있으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계 20:7-10). 이들이 나중에 성도들의 진(陳)을 형성하는데, 곡과 마곡은 이 진(陳)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城)인 예루살렘을 둘러싼다고 한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성밖에 살면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다는 이 내용도 세대주의자들이 묘사하는 것보다 더 구체성을 띤다. 이 내용도 기존의 다른 천년기설의 주장들에게 매우 낯설어서 면밀한 성경해석적 논의가 요구 될 것이다.

하늘이 불에 타고 큰 소리로 떠나

가고,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6. 서 목사에 의하면, 하늘이 불에 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불에 녹고 현재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이때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와 함께 유향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계 20:7-12),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의인들은 하늘 낙원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진다고 한다. 사실 이 점은 서 목사의 독특한 주장으로 다른 모든 천년기설자들이 답을 주지 못한 내용이다. 이 문제를 두고 신학적이고 성경 해석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무천년기설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 지각(地殼)에 대변동이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기간에 성도들은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필자는 무천년기설자에게서 이에 대한 답을 기대했으나 얻지 못했다.

7. 서 목사는 네 가지 휴거를 말한다. 첫째는 대환난기 전에 온전한 성도들이 휴거 한다는 것. 둘째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일하고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휴거한다는 것. 셋째는 예수를 믿는 144,000 유대인들이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다가 대환난기가 끝나면 휴거하며 마지막은 대환난 이후 일곱으로 추수되는 휴거사건(계 14:14-16)이 그것이다. 대환난기를 초림과 재림 사이로 보는 무천년기설이나 역사적 전천년기설은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다. 문제는 어느 쪽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8.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은 서 목사가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집회를 인도하는 일이다. 필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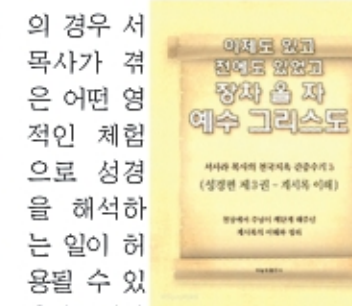
이 집회에 참석한 한 지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필자는 10여 년 전에 고 최의원 박사를 통해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집회의 경험은 어떠한 것일까 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인에 의하면 서 목사가 영안(靈眼)으로 집회 가운데 나타난 천사(?)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에스겔서 9:4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다. "겔 9: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과 그의 곁을 찬 사람을 불러 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집회에서 서 목사가 본 인(印)을 치는 사람들의 의복 착용이 이 구절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마에 무슨 표를 그렸는지 몰으니 십자가라고 한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표'를 그리라'고 한다.

히브리 원문은 '타우를 그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 타우는 무엇인가? 에스겔 시대의 히브리 문자에서는 타우가 X로 표기되었다. X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구약교수였던 고 최의원 박사는 그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우리말 구약성경에 곱셈표라고 번역했다. 최 박사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었다고 한다. 우리는 서 목사의 이런 사역에서 그녀가 영안으로 본 내용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신학이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서 계속 그 틀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는 성경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이념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4가지 전천년기설 중에 어느 하나도 절대적인 것으로 말할 수 없다. 모두 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론들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16세기 개혁자들의 이론들이 21세기에 와서는 더러 무리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처럼 말이다.

기존 개신교 신학은 성경이라는 문헌과 교회가 생산한 것을 그 주된 자료로 취급한다. 개혁신학



의 경우 서 목사가 겪은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허용될 수 있을까? 아마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학은 우선 성경을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제한이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고 충격을 준다면, 이런 체험은 교회와 신학 발전에 큰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즉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성경 진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면 신학 논의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역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어떤 신학을 비판하고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신 것이라고 가르친다. 서 목사의 모든 사역이 죄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서 목사가 천국과 지옥에 가서 놀라운 것을 보고 듣고 와서 전하는 내용 그 자체를 전하는 목적이 불신자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본다. 즉 서 목사의 관심은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특별한 발언은 신중하게 평가해야 되고, 평가할 경우에는 기존 성경해석에 대한 성찰 있는 반추(反芻)가 있어야 될 줄로 여겨진다. 사실 하나의 신학이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고 나아가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다. 개혁신학의 생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신학은 성도들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일을 위해 자기 신학을 무성토록 반성하고 대안을 생산해 놓아야 한다. 이로 보건대 서 목사의 증언과 발언에 대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평가를 위한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학적인 반성 없이 자기 이념에 갇혀서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가을 풍경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www.mokpodream.org
2019년 2인 이상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담임목사 이요셉

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안) 오전 7시30분
주일 3부예배(안) 오전 11시
찬양예배(안) 저녁 7시30분
금요찬양예배(금)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오후 기도회 오후 3시 : 지역기도회 저녁 9시 : 철야기도회 새벽 0시30분
주소: 전남목포시 신성로 322-3(연산동) 전화 / 061-277-0496 차정운행 : BUS 3번, 60번, 600번

사도영성을 지향하는
에조브(우솔초)선교회 가을 성회

명예총재 임신형 목사 (10월 14일(월))	총재 김종순 목사 (10월 15일(화))	대표회장 우솔초 목사 (10월 16일(수))	사무총장 박성길 목사 (10월 17일(목))	선교사 황미례 목사 (10월 18일(금))
한영리 목사 (연안(연안교회))	권미선 목사 (선교(선교교회))	윤재형 목사 (선교(선교교회))	한성민 목사 (선교(선교교회))	김종순 목사 (연안(연안교회))
홍요한 목사 (연안(연안교회))	황미례 목사 (연안(연안교회))	윤재형 목사 (선교(선교교회))	김영호 목사 (선교(선교교회))	조창환 목사 (연안(연안교회))
박정환 목사 (연안(연안교회))	노수우 목사 (연안(연안교회))	서재형 목사 (선교(선교교회))	김영호 목사 (선교(선교교회))	신정환 목사 (연안(연안교회))
전영환 목사 (연안(연안교회))	임영환 목사 (연안(연안교회))	김종현 목사 (선교(선교교회))	이준우 목사 (선교(선교교회))	홍성일 목사 (연안(연안교회))

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10월 18일(금) | 주최 | 에조브(우솔초)선교회
장소 | 주성교회 (담임 우솔초 목사) | 문의 | ☎ H.P 010-3775-5154
후원 | 농협 (백운초) 352-1648-4127-13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Site Church

목포주안교회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 061-272-4908 276-0006
남양주교회 무안군 삼읍읍 남양로 62번길 17 전화 061-287-6892
영암주안교회 목포시 용화지구로 8(연산동) 삼양빌딩 3층 전화 061-277-0691

피종진 목사 초청 10월 국내·외 성회

010-5255-7777
God Bless 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9.30(월)~21(수) 일본(JAPAN) 동경 나리타 총화교회(학장 정대만 목사) ☎ 070-8625-9116
제221차 해외성회(221st Overseas Assembly)
7(일)~8(화) 미국(U.S.A) LA 한미사모연합세미나
장소: LA 은혜교회(한기종 목사) ☎(714)446-6200
주최: LA 은혜교회(한기종 목사), 목회자사모연합세미나 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송동국 목사
9(수) 저녁 미국(U.S.A) LA 은혜교회(한기종 목사) ☎(213)321-6019
한국기독교부흥사단(총회장 박기민 목사)
장소: 서울 한영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02)2669-2200
제96회 동서울노회 정기노회
장소: 서울 서곡교회(박익서 목사) ☎(02)445-0181
14(월)~15(화) 태국(Thailand) 방콕 GOODTV 부흥원 김사단 MT ☎ 010-7291-0291
GOODTV 부흥사회의(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안병찬 목사, 사무총장 김용희 목사)
15(화)~17(목) 태국(Thailand) 파타야 아시아선교사대회 ☎ 010-7291-0291
주최: GOODTV 부흥사회의(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안병찬 목사, 사무총장 김용희 목사)
21(월) 오전 KAICAM (사)한국목회교육진흥재단(회장 송용필 목사)
장소: 분당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 ☎(02)3673-1323
대구 주안산수양생원장 박찬희 목사 ☎(053)768-6205
다들림국제선교회의(대표회장: 대관구민회관)
☎ 010-4519-3259 주최: 다들림국제선교회의(이사장 피종진 목사, 교민 김동진 장로, 총재 정성호 목사)
25(금)~27(일) 미국(U.S.A) LA 올리브나무교회(서정희 목사) ☎(213)509-9066
28(일)~30(수) 미국(U.S.A) LA 열매장로교회(장혜숙 목사) ☎(562)745-7474
미국(U.S.A) LA & 남가주지역 | pray for all Nation 기도대중비회원 장 Sunny Lee

평안교회 설립 11주년 기념 임직예배 드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장승현 목사)는 지난 10월 9일(수) 오전 11시 충남 당진시 송학읍 봉화로 소재에서 교회설립 11주년을 기념, 1부 감사예배를 드리고, 2부 안수집사 임직 및 권사 취임식, 3부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담임 장승현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에 백석일 목사(천의감리교회)가 기도, 문인철 목사(성은교회)가 성경봉독(고전 4:1-5)을, 이형우 목사는 "찬찬 듣는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편종만 목사(당진 외국인교회)가 봉헌기도를 했다.

2부 순서로 담임 장승현 목사는 임직자 김영규 장래목사를 소개한 후 서약하고, 구운순 이미영 강령



숙 김기숙씨를 백석교단의 헌법규칙에 따라 동시에 안수집사, 권사취임자 등을 안수하고 평안교회 안수집사와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

했다. 아울러 임직 및 선물, 꽃다발 증정 등이 이어졌다. 3부는 축하와 공연이 시작되어 담임 장승현의 목사의 감사패 증정에 이어 배봉섭 목사(내포성현

교회)는 안수집사를 향해, 이승우 목사(아산양문교회)는 권사에게 각각 권면하고, 축사에 우경식 목사(충남 성서화운동 본부 대표회장), 장효근 목사(충천 동성교회 원로), 정용선 권사(새한대학교 경찰소방대학장) 등이 나섰으며, 축기에는 평안양상발, 정성진 외 평안교회 학생회 등이 실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어 평안교회 이미영 권사는 '본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 되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고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인사와 광고를 끝으로 박용선 목사(당진 은목회 회장)의 축도가 있는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주사랑교회(김선우 목사) 이전 감사예배



주사랑교회 담임 김선우 목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교회를 이전하고 지난 10월12일(토) 오전 11시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선한 목사(영광교회담임)의 찬양인도, 변호덕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김수자 목사가 기도하고, 인도자의 성경봉독(역

대상 4:9-10)에 이어 김선우 목사 동거들의 특송, 조정숙 목사(합동중앙교회, 경인노회 노회장)는 "너는 복된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경인노회 목자들이 봉헌송, 박준복 목사의 헌금기도, 축사에 박영민 목사(예복총회 총회장,

등불교회담임), 최길춘 목사가 권면하고, 담임 김선우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한 후 나이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많은 동역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사랑교회 이전 감사예배에 기도와 격려로 축복을 기원했다.

웨신희남노회 정기노회 개회, 목사 임직식 가져

신앙, 기도, 말씀, 헌신, 인격, 열정 등이 올라가야!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호남노회(노회장 마순덕 목사)는 지난 10월 7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소재 푸른솔교회(허창범 목사(웨신 직전총회장)에서 1부 개회예배를 드린 후 정기노회를 개회하고 현 노회장과 임원들이 연임됐다. 2부 성찬과 3부 강도사 인회 및 목사안수식에 이어 종식을 마친 후 회무처리순으로 진행되었다.

웨신희회 호남노회는 1부 개회예배에서 서기 윤석희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고 회의록서기 유한주 목사가 기도를, 노회장 마순덕 목사는 담임:1:18-19절을 중심으로 선포하고, 2부 설교는 총회장

박정균 목사가 전했다. 2부는 직전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성찬식을 집례하고, 양은실 목사가 기도했다. 집례를 맡은 허목사는 녹 22:19-20절을 주제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분별 분전을 마친 후 집례자 허창범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노회장 마순덕 목사의 인도로 2부 웨신희회 호남노회 강도사 인회 및 목사 임직예배가 진행되어 위원들의 입장에 이어 고정목 목사(부노회장)의 기도, 김미경 목사(호남노회 회계)가 (마 5:1-3)절을 봉독하고, 이정재 목사가 특송을 했다. 설교에 나선 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올라가 앉으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총회장 박 목사는 목회자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영혼을 보는 눈, 일꾼들을 보는 특별한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올라가는 신앙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려가는 신앙은 실패와 좌절뿐이요 주님과 상관없다는 말씀을 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려가는 것보다 끊임없이 올라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신앙도, 기도도, 말씀도, 헌신도, 인격도, 열정도, 모든 것이 올라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박 총회장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라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동역자가 될 것을 기원했다. 요 6:63절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처럼 주의 종들은 입만 열면 말씀이 예수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 입을 조심해야 할 것을 직시했다. 주의 종들은 기도와 말씀, 헌신과 열정, 인격과 열정으로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덕망 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자고 했다.

다.

3부 순서로 노회장 마순덕 목사는 강도사 인회를 소개하고, 허성준 문찬석 허재준 등이 서약했다. 노회장은 위의 3인이 강도사 된 것을 공포하고 인회증과 패를 전달했다.

이어 이경식 김용심 등이 서약하고 목사 임직을 받은 후 성의 착의, 악수례에 이어 노회장 마순덕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호남노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고, 목사 임직증서 및 임직패를 수여하고 선물을 증정했다.

이날 안수위원은 허창범 목사(웨신희회 직전총회장), 박정균 목사(웨신희회 총회장), 마순덕 목사(호남노회장), 정기남 목사(CJTN TV 지저스타임즈 대표), 고정목 목사(광주명성교회), 고정목 목사(부노회장), 윤석희 목사(노회서기) 등이다.

종식을 마친 후 3부 회무처리가 노회장 마순덕 목사의 사회로 속개되어 서기 윤석희 목사의 회원점명과 절차보고, 회의록서기 유한주 목사의 회의록낭독 등 회의가 진행되었다. 임원선출에 있어 총대원들은 현 노회장 및 임원을 그대로 유임할 것을 만장일치 결의 통과시켰다. 이어 회의록서기의 회의록제 보고와 광고, 박보화 목사의 폐회 기도를 끝으로 노회장 마순덕 목사의 폐회선으로 가을 정기노회를 화가에예한 가운데 마쳤다.

순복음춘천교회, 2019 육군 2군단 연합 찬양축제 개최

이수형 목사 <춤추며 찬양합시다> 설교, 2군단 9개 군인교회 참가

한국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를 실천하는 사역이 군선교이다. 사랑과 나눔으로 군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복음춘천교회와 2군단이 2016년부터 "2군단 연합 찬양축제"를 개최하여 올해 4회째가 되었다. 2019 2군단 연합 찬양축제는 9월29일(주일) 오후 3시 순복음춘천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으며, 700여명의 장병들과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번 2군단 연합 찬양축제는 군단 내 사단 및 여단의 9개 군인교회에 참여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군단 내 모든 부대의 평안을 소망하고 교회별 연합을 강화하여 군선교의 사명을 이루고자 준비하였다.

2군단 한빛교회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이한익 목사(2포병여단 불기독교회)의 인도, 심홍수 목사(2군단 한빛교회)의 기도,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장)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이 목사는 사무엘 6장 12-15절 중절로 "춤 추며 찬양합시다" 제목의 말씀을 통하

여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하며,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 능력은 된다. 찬양을 통하여 군생활과 성도의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4만명의 장병을 섬기면 사명을 감당하는 김혁수 2군단장은 "2군단 연합 찬양제 개최를 축하드리고, 하나님과 순복음춘천교회 이수형 담임 목사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장병들의 찬양하는 성령충만의 모습을 보고 군선교를 위하여 지휘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

고 인사말을 하였다. 찬양축제는 9개 군인교회가 참여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었다.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 난타팀의 '천지물림' 축하공연 후 성문교회(2공병여단)는 <하나님 나라>, 칠성교회(7사



단)는 <나를 통하여>, 불기독교회(2포병여단)는 <예수 이름 높이세>, 승리교회(15사단)는 <고백>, 산돌교회(2군지여단)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불사조교회(702특공연대)는 <보리밭 & 야마 참마이여>, 이기자교회(27사단)는 <거룩한 주>, 가나안교회(37기갑여단)는 <주가 일하시네 & 예수 그리스도>, 한빛교회(2군단)는 <변화는 주님의 사랑과> 곡을 찬양하였다. 찬양축제를 마치고 순복음춘천교회에서 각 군인교회에 군선교비와 2군단 한빛교회 리모델링 선교비를 전달하였다.



축 지저스타임즈 창간 14주년기념 감사예배 공고

축 언론부흥사협의회 임원일동

이사장/총재

사장/명예총재

대표이사상임대표

명예이사장

명예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허창범 목사

소진우 목사

정기남 목사

정기환 목사

이영종 목사

아규필 목사

장한국 목사

정대성 목사

박정균 목사

김장룡 목사

박승영 목사

곽동훈 목사

강요셉 목사

최순길 목사

이흥희 목사

오종설 목사

사무총장

총무국장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곽영민 목사

백운성 목사

최낙현 목사

이기학 목사

홍형표 목사

서명범 목사

곽원근 목사

신언창 목사

임요한 목사

이선한 목사

유순옥 목사

김선우 목사

박용숙 목사

김장숙 목사

김부경 목사

박영미 목사

임잔미 목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논설고문

상임이사

국제부총본부장

트윈디신문방송대표

조영만 목사

고성규 목사

김지연 목사

정사라 목사

박영운 목사

서사라 목사

총장 이정기 박사

학장 최사라 박사

하나님앞에 영광돌려드립니다.

오셔서 기도와 격려로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시 : 2019.10.25(금) 오전 11시

■장소 : 인천영광교회 TEL:032)577-1225, H.P 010-5468-6574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 (구.가좌4동 4-24)

■오시는 길 : 전철 1호선 인천행 => 동암역 내려서 마을버스 593번 승차 중점에서 하차 바로 영광교회

■자가용 : 네비게이션에 주소 입력하고 오셔서 기도와 격려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